

데뷔 20주년 맞은 ‘원조 아이돌’ 강타

“8년만의 컴백 감회 새롭죠”

오는 3일 새 앨범 ‘홈’(Home) 챗터 1 발표
서울 공연 전석 매진에 2회 추가 ... 인기 여전



1세대 ‘원조 아이돌’ 강타(본명 안철현·37)에게 올 해는 의미가 남다르다. 1996년 H.O.T로 데뷔했으니 가요계 연륜이 어느덧 20년이 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는 한 해 앞서 연습생으로 들어와 21년을 함께 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SM은 내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 같다”며 “SM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송과구 석촌동 작은 주택이었으니 마치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 넓은 집에 사는 느낌이다. 때론 집이 싫어지고 가족과 소원해질 때도 있었이 활동을 많이 안 할 때는 멀어졌다가도 결국 내가 돌아올 집, 뭔가를 할 때의 시작점”이라고 돌아봤다. 11월3일 새 앨범 ‘홈’(Home) 챗터 1을 발표하는 그는 타이틀곡 ‘단골식당’(Diner)으로 8년8개월 만에 솔로 활동을 재개한다. 팝 발라드인 ‘단골식당’은 강타의 자작곡으로 지나간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현실적인 가사로 표현했다. 11월 계획한 서울 공연은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호응을 얻어 2회를 추가해 총 5회로 확장됐다. 그와 SM에 몸담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오랜만에 솔로 활동에 나서는 소감을 들어봤다. “3년 전 (SM 가수들의 합동 공연인) SM타운 공연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는데 8만석이 꽉 찼어요. 그 무대에서 걸어나가는데 꼭 찬 객석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거의 내 팬들이 아니지만, 무대에 올라가니 자랑스러웠어요. 2000년 H.O.T가 공런(工人) 체육관 1만석을 채운 것도 신기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올랐죠. 후배들에겐 베이징 공연이 수많은 해외 무대 중 하나였을 수 있지만 내게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미니앨범에 대해서 그는 “이수만 선생님은 내가 댄스 음악을 하길 원했다(웃음)”며 “일상적인 느낌을 담은 발라드 등을 수록하는 데 결국은 ‘좋은 곡을 들려주면 되지 않나’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활동한 1세대 아이돌 그룹인 젝스키스가 올해 성공적으로 재결합했고, S.E.S와 엔알지(NRG)가 내년 데뷔 20주년을 맞아 앨범을 예고해 H.O.T의 재결합에 대한 관심도 쏠렸다. 아쉽게도 아이돌 문화의 시작점인 H.O.T는 20주년을 자축하지 못했다. 강타는 “솔직히 옛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젝스키스가 16년 만에 재결합한 MBC TV ‘무한도전’을 보면서 그날만큼은 원 없이 생각했다”며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볼까’란 생각부터 ‘우리도 저랬는데’라고 추억에 젖었다”고 회상했다. 지금의 아이돌 시장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시스템이 확실히 자리 잡으며 보컬뿐 아니라 멤버들의 역량이 훌륭해졌다”며 “후배들은 질 높은 무대를 꾸미는데, 환경이 좋아진 반면 스스로 연구하고 쟁야가 할 게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아이돌 그룹의 공식이 생기고 예전보다 정형화된 팀이 많아졌다는 느낌도 들어요. 1990년대에는 팀마다 색깔이 뚜렷했습니다. H.O.T가 ‘캔디’를 부르고 젝스키스는 ‘폼생폼사’를, 신화는 평가한 ‘해결사’를, 지오디는 감성적인 ‘어머님께’를 노래했죠. 물론 요즘도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는 팀이 많지만, 수적으로 많아져서인지 비주얼이나 음악에서 비슷한 팀이 눈에 많이 띄어요. 이런 팀의 개성이 뚜렷해야 하고 멤버들이 여러 가지를 섭렵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장입니다.” 이어 후배들에 대해 선배로서 조언도 잊지 않았다.

“후배들이 ‘형이 활동했을 땐 어땠어요?’라고 많이들 물어올 때가 있어요. 때론 팬들이 따라와 밖에 다니기 불편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모두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니 그게 힘들어지면 모순이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해서 된 것이니 그만큼 인기를 얻으면 사생활이 제약 받는 부분도 감내해야 합니다.” ‘오빠’에서 어느덧 ‘아재’가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됐는데, 시간의 흐름을 언제 느끼나는 질문에는 “진짜 아재한테 아재라고 하면 싫지 않나. 하하. 그런데 내가 사는 모습은 아직 ‘젊이 덜 든 아재’이다. 우리 또래들이 그랬듯이 여전히 프라모델(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식 모형 장난감)을 모으고 ‘원피스’ 같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프라모델 속에 가서 내 또래 아빠들이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르는 걸 보면서 시간이 흘렀다고 깨닫는다”고 답했다. 결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대하기 전, 제대하면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1살에 제대하고 32살이 되는 순간 정신연령이 애가 되더라구요. 혼자 살기 시작하니 막막했었어요. 머리로는 ‘해야지’ 하는데 막상 내 생활 앞에선 ‘어떻게 결혼을’이란 생각이 듭니다. 친한 김민중 형이 ‘적당한 나이에 하라’고 충고했는데 내 나이를 보고 놀라더라고요.(웃음)“ /연합뉴스

옥중화·무한도전 등 드라마·예능서

최순실 국정농단 패러디 속속 등장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현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을 패러디한 장면이 잇달아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0일 밤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옥중화’ 49회에서는 무당이 등장해 오방낭을 건네며 “간절히 바라면 천지의 기운이 마님을 도울 겁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오방낭은 오행론에 따라 청·황·적·백·흑의 오색비단을 모아 만든 주머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 당시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에서 오방낭을 여는 행사를 했다. 최근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PC에서 오방낭 관련 사진이 발견돼 최 씨가 박 대통령이 취임식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천지의 기운이 도울 것”이라는 극중 대사는 박 대통령이 과거 행사에서 했던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던 발언을 연상시킨다. ‘옥중화’제작진은 31일 최순실 게이트를 풍자한 게 맞다고 밝혔다. 제작 관계자는 “조선조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의 현실하고 제일 맞는 것이 정난정이 국정을 농단했을 때”라며 “그것을 드라마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마음에 막판에 밥상에 손가락 하나 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정왕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살던 정난정과 윤원형의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과 들어맞는다”면서 “두어달 전에 일이 터졌다면 더 일찍 드라마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종영을 앞두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옥중화’에서는 종금(이영재 분)이 윤원형(정준호)의 아이를 갖고 정난정(박주미)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집에 몰래 무당을 불러들인 대목에서 무당이 종금에게 오방낭을 내미는 상황을 그렸다. 무당은 “뜻을 이루려면 더 큰 힘을 써야 한다”며 비단 북주머니를 내밀면서 “이것이 오방낭이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절히 바라면 천지의 기운이 마님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고, 종금이는 벼간 표정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 관계자는 “그간 극중에서도 정난정 무리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대사는 수차례 나왔었다”면서 “현실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혀를 찼다. 명종 시대를 배경으로 전옥서에서 태어난 옥녀의 이야기를 그린 팩션 사극 ‘옥중화’는 이제 종영까지 2회가 남았다.

지난 29일 저녁 전파를 탄 MBC TV ‘무한도전’ 우주여행 특집편에서도 패러디가 등장했다. 이날 6명의 ‘무한도전’ 멤버는 무중력 비행 체험을 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나기 전 지상에서 무중력을 느껴본다며 헬륨가스를 채운 특수풍선으로 박명수 등의 몸을 공중으로 띄웠다.

이때 화면에는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출발”, “상공을 수놓는 오방색 풍선”이라는 자막이 걸렸다.

이날 방송에선 이밖에도 “끝까지 모르쇠인 불통왕”, “요즘 뉴스 못 본 듯”과 같은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듯한 자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재)	00 양코르 MBC스페셜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2016 중흥 S-클래스 교교동문 골프대회
1	00 특집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의 생존전략	00 1대 100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2016 삼성화재배 월드마스터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폭력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자동차부품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꼭? 꼭! 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워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집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20 2016 KBO 리그 한국시리즈 3차전 <두산 vs NC>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교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KBS목포방송국 개국 74주년 특집 2016 목포가요축제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10	00 4차 산업혁명 기획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MBC 뉴스데스크 35 월화특별기획 <개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 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트릭 & 트루	45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MBC 뉴스24 50 미래일기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름다운 <동남아 섬 기행> 필리핀 세부, 루손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부주 돼지고기 덮밥과 무나물>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레빗 15:20 아웅명명 귀여워(재) 15:35 오솔 상지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릉미즈(재) 16:45 똥똥 똥똥미즈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류 오늘 <조기를 추억하며> 20:50 세계테마기행 <남인기행을 떠나다. 아일랜드섬 - 남인의 가을, 링 오브 케리> 21:30 한국기행 <엄마야 누나야 강변별墅지> 21:50 EBS 다큐프라임 <생존 - 최후의 생존, 너구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음 10월 2일 丁亥)

子 48년생 한 동안 긴박한 정황이 계속 될 것이나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60년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자. 72년생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84년생 현상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26, 80	午 42년생 가장 상식적인 방안만이 합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54년생 약간 지연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목적은 달성 되겠다. 66년생 애로 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78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고 대조해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4, 73
丑 49년생 때와 정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61년생 모르고 지냈으면 더 나았을 법한 비발을 우연히 듣게 된다. 73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85년생 농민다면 후회 막급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52	未 43년생 우발적이라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55년생 성급하게 처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화근을 날리리라. 67년생 삼기일전 한다면 활기 찬 미래를 열 수 있다. 79년생 구조적인 모순 관계에 놓여 있도다. 행운의 숫자 : 94, 30
寅 50년생 핵심적인 원리만 파악한다면 쉽게 가닥이 잡힐 것이다. 62년생 간절하다면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74년생 실수한다면 커다란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86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1, 75	申 44년생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이며 편하다. 56년생 의롭게 처신한다면 두고두고 칭찬 받으리라. 68년생 밝은 웃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80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04
卯 51년생 모서서 의논해 본다면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63년생 제3자의 시각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 집착을 버리고 객관성을 도모하라. 75년생 바로 그것이 문제라다. 87년생 날날이 실패보아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48, 66	酉 45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57년생 재물이 늘어 날 수도 있는 운세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 69년생 기초부터 재검토 해봐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81년생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라. 행운의 숫자 : 90, 19
辰 40년생 검토습과 달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 52년생 여건이 풀린다. 64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소신껏 행해도 된다. 76년생 공로의 급자탐이 눈부시게 빛나겠다. 88년생 실효적인 가치를 구하자. 행운의 숫자 : 77, 34	戌 4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58년생 먼 안목으로 내다보는 예지가 수반 된다면 훌륭한 구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안심하고 지내도 된다. 82년생 태산처럼 밀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67
巳 41년생 낚치는 것 보다는 부족한 도움이 결과적으로 낫겠다. 53년생 미미심장한 날이 되리라. 65년생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될 이룰 것이다. 77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익이다. 89년생 약진의 발판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7, 01	亥 47년생 바라는 것은 허망하다. 59년생 명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71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이르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라. 83년생 잘못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원점으로 복귀하여 재출발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8, 8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